

“넷플 보는 날엔 연희동으로… 고도화된 공감 플랫폼 목표”

3040 벤처 CEO 열전

‘넷플연가’ 세븐픽처스 전희재 대표

“퇴근 후 혼자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재택근무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는 도시에 살면서 낯선 이들과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안전한 커뮤니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전희재 세븐픽처스 대표는 2019년 ‘넷플릭스 보는 날엔 연희동에 가야한다’는 의미의 커뮤니티 플랫폼 ‘넷플연가’를 론칭했다. 넷플연가는 ‘넷플릭스 혼자 보는 당신을 위한 커뮤니티’로 시작해 현재는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와 책 등을 포함한 여러 콘텐츠를 함께 보고 즐기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로 확장해가고 있다.

넷플연가는 론칭 이후 코로나19 기간 집에서 혼자 OTT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성장했으며, 20~30대가 주요 이용자다. 올해 10월 기준 넷플연가 정기모임은 450개, 정기모임을 경험한 유저들만 3600명에 달한다.

전희재 대표는 넷플연가 시작 전 수영 선수, 파이낸스, 문화예술 PD, MARU180 스타트업 매니저 등의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술가, 창작자들과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은 넷플연가를 시작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일을 마치고 남아서 창작자들의 작업실에서 여러 주제로 밤늦도록 이야기할 때가 기억에 남는다”며 “일보다는 조금 더 문화적인 취향을 바탕으로 만나는 것이 좋았고, 창작자들의 작업실은 공간이 주는 아우라가 있어서인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퇴근 후 직장인들도 이런 공간에 모여서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넷플연가 서비스 오픈의 시작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넷플연가는 멤버십 제도(월 5만~7만원 / 3개월 단위)로 운영된다. 주제는 연애부터 여행, 영화, 요리, 와인, 글쓰기 등 다양하며 최대 12명이 모여 3개월 동안 네 차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미리 안내된 영화를 본 뒤 오프라인에서 모여 다양한 사



넷플연가 모임에 참여한 회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세븐픽처스)

혼자 OTT 즐기는 이용자 위해 론칭 비슷한 취향 이용자들끼리 정기모임 모임만 450개, 참석 유저 3600여 명

참여비용 다소 높지만 진정성 높아 질 높은 커뮤니티 경험·시간에 방점 플랫폼 확장 중… 지속 서비스 개선



전희재 대표가 넷플연가를 소개하고 있다.

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다.

기존 동호회와 다른 점은 모임 참여 비용이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전 대표는 “멤버십 금액은 모임에 참여하는 태도, 진정성 면에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준다”며 “비교적 높은 멤버십 참여비용과 준비된 커리큘럼과 전문성 높은 모임장, 커뮤니티 문화와 운영 시스템 등으로 질 높은 커뮤니티 경험과 시간을 만드는데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진 데다, 취향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다보니 즐거운 분위기의 커뮤니티가 운영되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이외에도 정기모임에서 다루는 콘텐츠가 다양해졌다. ‘환승 연애’, ‘체인지데이즈’, ‘솔로지옥’ 등 OT

T에서 방영되는 리얼리티 연애 예능을 보고와서 각자의 연애관을 이야기하는 모임도 인기가.

넷플연가는 지난 9월 14억원 규모의 프리시리즈A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스트롱벤처스, 캡스톤파트너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캡),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가 투자에 참여했다. 전 대표는 투자 자금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인재 영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이 확장되도 고객 경험이 낮아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맞는 취향을 찾을 수 있고,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플랫폼을 고도화해 나가야죠.”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전희재 세븐픽처스 대표

“내년 세계 경기회복 둔화… 주요 리스크는 ‘분절화’”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美·中 무역갈등 촉발 분절화
中 제로코비드 정책 등 영향

내년 세계경제를 이끌던 미국·유럽·중국의 경제적 충격이 주변국의 경기까지 위축시켜 회복흐름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중 무역갈등에서 촉발된 분절화와 중국의 방역정책, 신흥국의 경상수지 적자 등이 심화될 경우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각국의 개별적인 대응노력과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경제포커스: 내년도 세계경제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을 내놨다.

◆美 기준금리 인상, 주변국 경기위축 시켜

한은은 미국의 금리인상 등 긴축기조 강화로 내년 주변국의 경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변국은 물가상승, 자본 유출 등 달러 유동성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시기와 달리 코로나19로 글로벌 성장세가 견조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위축 가능성이 크다는 것.

신흥국은 경제회복이 더딜 수 있다.

지난 7월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은 94개국에 212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기존 금융위기 시기 지원한 국가(66개국)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존 금융위기 때는 신흥국이 선진국 부진을 보완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흥국의 인적·물적·자본 투자가 더 심하게 위축돼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역은 전반적으로 둔화되나 서비스교역은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증

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제조원가가 오르고 금리 상승으로 주택, 운송장비의 비용이 인상됐지만 소비여력이 감소하며 재화교역이 둔화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항공 좌석량은 지난 2021년 4분기 2300만석에서 지난 10월 3400만석으로 47.8% 증가했다.

◆배타적 경쟁, 중국 방역정책 심화… 세계경제 리스크 ↑

한은은 특히 이 같은 상황속에서 분절화가 나타날 경우 세계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미국은 대(對)중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따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될 바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주요 IT기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대중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자국우선주의가 지속되고,

자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인사들이 약진하면 향후 분절화가 심화될 수 있다.

한은은 “GVC구조분절화는 비효율 증대로 이어져 비용상승을 수반하게 돼 향후 고물가 환경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국의 개별적인 정책 대응노력과 함께 국가 간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제로코비드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에 따르면 현 수준의 제로코비드 정책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중국의 성장률은 4~5%p 추가하락 한다.

또 부동산 부분(부동산 서비스업, 건설 등)이 10% 위축시 전·후방 산업 생산 감소 등으로 전체 GDP가 2.2~2.9%p 떨어진다. 세계경제 분절화가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을 제약

하고, 정책여력이 약화되면 경제 성장 모멘텀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심한 신흥국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신흥국은 미국의 금리인상 및 달러화 강세가 이어진 경우 자본유출에 따른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바 있다. 1

995~2001년 동아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자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외채 및 민간신용이 확대돼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2014~2015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며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의 국가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상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수지 적자가 지속되며 경상수지 흑자 전환이 어려운 상태다. 상반기 소득수지는 아르헨티나 -45억달러, 브라질 -270달러, 칠레 -65달러, 콜롬비아 -21달러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